이수민, KPGA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정상

3년 만에 우승 키스 '왕자의 귀환'

4라운드 위기…3연속 버디로 승기
국내 복귀 6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
한국남자골프 기대주 화려한 부활
"이번 우승으로 다시 자신감 생겼다"

이수민이 6일 경남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KPGA 코리안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와 입을 맞추고 있다. 3년 전 유럽 진출 후 쓴맛을 봤던 이수민은 이번 우승으로 왕자의 귀환을 알렸다. 사진제공 | KPGA

스물 셋의 앳된 귀공자는 당차게 해외 무대로 떠났다. 속된 표현으로 밥 먹듯이 우승하리라고 믿었던 때였다. 그러나 쟁쟁한 스타플레이어들이 버티는 전쟁터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우승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품속 깊이 지니고 있던 풀시드는 모두 소멸됐고, 결국 이렇다할 소득 없이 국내 무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한때 한국남자골프를 짊어질 기대주로 각광받았던 이수민(26·스릭슨)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정상 복귀를 마쳤다. 유러피언 투어에서의 부진을 뒤로하고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로 돌아온 이수민은 6일 경남 김해 정산 컨트리클럽(파72·7300야드)에서 끝난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 원·우승상금 2억 원)에서 15언더파 273타로 우승을 차지하고 왕자의 귀환을 알렸다.

2013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군산CC오픈 정상을 밟아 파란을 일으킨 이수민은 2015년 프로로서 같은 대회를 다시 한 번 제패하며 코리안 투어의 특급 신예로 발돋움했다. 이어 2016년 4월 유러피언 투어 선전 인터내셔널 우승으로 풀시드를 얻은 뒤 이를 앞세워 유럽 무대에서 새 날개를 펼쳤다. 그러나 기다리던 우승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할 성적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 올해 4월 코리안 투어 복귀와 함께 만난 이수민은 "긴 이동거리는 물론 음식과 주거 환경 같은 전반적인 적응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떨어진 자신감도 부진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힘겨웠던 지난 3년의 세월을 되돌아봤다.

절치부심한 채 돌아온 이수민은 올해 NS홈쇼핑 군산CC 전북오픈 3위, SK텔레콤 오픈과 KB금융 리브챔피언십 준우승으로 서서히 우승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지난해 연장 패배의 아픔이 서린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마침내 정상 복귀를 이뤄냈다.

2타차 단독선두로 3라운드를 마친 이수민은 1번 홀(파5) 7m 이글 퍼트 성공으로 산뜻하게 최종라운드를 출발했다. 그러나 5번 홀(파5)과 7번 홀(파4) 보기로 잠시 주춤했고, 그 사이 이동민이 파5 10번 칩샷 이글로 12언더파 공동선두가 됐다. 위기를 맞은 이수민은 12~14번 홀 3연속 버디로 다시 리드를 벌렸고, 이후 안전한 파 행진으로 쐐기를 박았다.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최종순위 (파72)

	선수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이수민	15언더파 273타	68-65-72-6
준우승	이동민	13언더파 275타	66-71-71-6
3위	최경주	10언더파 278타	72-65-70-7
4위	박준혁	9언더파 279타	69-71-67-7
공동 5위	윤정호	7언더파 281타	70-71-72-6
	김태훈		69-70-75-6
	문도엽		70-70-71-7
	조성민		68-70-72-7
공동 9위	정지호	6언더파 282타	71-68-74-6
	김홍택		69-72-70-7
	이승택		67-68-73-7

챔피언 퍼트 직후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던 이수민은 "올 시즌 정말 많은 운동을 하고 있다. 몸무게가 71kg에서 79kg로 될 만큼 꾸준히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드라이버 비거리도 30야드 정도 늘었다"면서 "이번 우승으로 다시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올해와 내년 모두 대상을 차지한 뒤 마음 편히 입대하고 싶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이수민**

▲생년월일=1993년 10월 12일 ▲신체조건=신장 180cm·체중 79kg ▲출신교=횡계초~도암중~육민관고~중앙대 ▲후원사=스릭슨 ▲소속사=세마스포츠마케팅 ▲프로 데뷔=2015년 ▲우승 경력=2013년 군산CC오픈, 2015년 군산CC오픈, 2016년 선전 인터내셔널, 2019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수상 경력=2015년 동아스포츠대상, KPGA 코리안 투어 신인왕

〈최경주〉

건재 과시한 탱크 "공동 3위, 대만족"

최경주

'코리안 탱크' 최경주(49·SK텔레콤)가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내건 대회에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아들뻘 후배들과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노장은 살아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내 골프팬들에게 던졌다. 최경주는 6일 경남 김해 정산컨트리클럽에서 끝난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을 합계 10언더파 278타 공동 3위로 마쳤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탱크의 건재를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무대였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내내 안정적인 샷 감각을 뽐냈다. 톱10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86.11%의 그린 적중률을 기록했고, 2라운드에선 이글 두 방을 연달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승이 걸린 최종라운드에선 1번 홀(파5) 버디 이후 나머지 17개 홀 모두 파에 그치며 7년만의 정상 등극은 이루지 못했다.

모처럼 후배들과 우승경쟁을 펼친 최경주는 "나흘간 단 하루도 타수를 잃지 않았다. 몇 차례 위기도 잘 막아냈다. 한 갤러리께서 '(최경주 아직) 살아있네'라고 하시더라. 대만족이다"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KPGA 코리안 투어는 최근 갤러리의 비상식적 관전문화와 이에 비정상적으로 대응한 선수가 빚어낸 사태로 홍역을 앓았다. 최경주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보다 많은 갤러리들께서 이번 대회를 찾아주셨다. 물론 아직까지 선수가 집중하는 시점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보다는 관전문화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역전드라마 쓴 장하나, 3억7500만원 '잭팟'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서 우승
KLPGA 단일대회 최고 상금액

장하나

장하나(27·비씨카드)가 극적인 역전 우승으로 국내 남녀 프로골프 단일대회 최다 우승상금을 거머쥐었다.

장하나는 6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파72·6535야드)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15억 원·우승상금 3억7500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공동 2위 이다연과 김지영2을 제치고 통산 11번째 정상을 밟았다. 이 대회 우승상금인 3억7500만 원은 KLPGA 투어는 물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단일대회 사상 최고액이다. 1타 차로 우승을 놓친 이다연과 김지영은 각각 1억2225만 원씩을 안았다.

15번 홀(파4)까지 3타차 단독선두를 달린 이다연의 우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던 최종라운드였지만, 변수는 바로 다음인 파4 16번 홀에서 발생했다. 이다연의 세컨샷이 그린 왼쪽 벙커턱에 박히면서였다. 고심을 거듭한 이다연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공을 빼냈고, 결국 이 홀을 더블보기로 마쳤다.

여기서 격차가 1타로 좁혀진 둘의 운명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갈렸다. 앞조 장하나가 버디를 잡은 반면, 뒤따르던 챔피언조 이다연은 2m 파 퍼트를 놓치면서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지난해 4월 크리스F&C KL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올 시즌 준우승만 3차례를 기록했던 장하나는 "역시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아는 종목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개인적으로 큰 희망을 봤다"고 벅찬 감격을 표했다. 고봉준 기자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르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 나이가 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다 라는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돈이면 누구나 다 된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실건가요?
우선 나이가 어려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야 하고 노화현상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서남해안황칠협동조합과 주에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황칠크림은 황칠나무 추출액을 함유한 주름개선, 피부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굴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나게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탱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와지면 괜시리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보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1세트: 장보고 황칠크림 2개 + 황칠미용비누 1개
*판매원: 서남해안황칠협동조합
*용량: 70g/개
*제조원: 주에이스제약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피부가 고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본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황칠크림 1600-28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벨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받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1600-1047